지역 메아리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봄맞이 문화행사 운영

정읍시립중앙도서관에서 생명의 계절 4월을 맞아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오는 14일에는 가족 숲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숲 해설가의 인솔로 가족과 함께 숲에서 책을 읽으며 숲을 이루는 생명을 직접 만나고, 관찰하는 현장 체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족 숲 체험 교실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토요일에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도서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5일에는 봄꽃과 나무를 주제로 '꽃으로 이야기해요'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 속 재봉사'외 4권의 그림책을 함께 읽고, 누름꽃을 활용하여 그림책 액자 만들기를 진행한다.

도서문화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책을 매개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경찰서, 강력범죄 현장 대응능력 강화 모의훈련 실시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6일 관내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FTX)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술에 취한 용의자가 흉기를 휴대하고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가장하여 지역경찰, 강력팀, 112, 교통외근, 타격대 등 전 가용경력이 참여해 최초 신고 접수부터 상황전파, 공조요청, 검거까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진행했다.

이동민 서장은 "강력사건 발생시 경찰 인력을 총동원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경찰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해, 역량 있는 부안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짚 트랙으로 변산해수욕장 만끽

부안군-짚 트랙, MOU 체결… 변산해수욕장 일원 국내 최장 짚트랙 설치

부안군은 9일 ㈜짚 트랙과 '부안 짚 트랙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일원에 부안 짚트랙을 시공할 예정이며 짚 트랙의 총연장은 1333m으로 4라인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부안 짚 트랙은 1코스와 2코스로 구분되며 짚 트랙을 타면서 변산해수욕장의 멋진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따라 모든 사업비(추정가 33억 원)는 ㈜짚 트랙에서 부담하게 되며, 부안군은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부안군은 올해 상반기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일원에 부안 짚트랙을 시공할 예정이며 짚 트랙의 총연장은 1333m 으로 4라인으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짚 트랙 민자사업을 시작으로 루지(Luge) 레저시설, 고급호텔 등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라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를 사계절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과 민간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짚 트랙은 대천 짚 트랙, 가우도 짚 트랙 등을 시공·운영 중인 국내 유수의 짚 트랙 회사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재성남 전북향우회, 정읍시 방문

고향 후배 양성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재성남 전북향우회(정읍시민회 회장 최창권) 회원 400여명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가 지난 7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정읍시립국악단의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고향 후배 양성을 위해 재성남 정읍시민회(대표 최창권)에서 준비한 장학금 1,000만원 기탁식과 시정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3명), 환영사,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한욱 정읍애향운동본부장은 "재성남 전북향우회의 이번 정읍 방문이 회원들께서 정읍을 알고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정읍의 봄을 만끽하면서 즐거운 시간 갖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은 "평소 고향 사랑 실천에 앞장서오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정읍의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향우회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날로 발전하는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환영행사를 마친 회원들은 벚꽃축제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고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샘고을시장을 방문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작은말고개 도로 본격 개통

교통량 분산으로 출 · 퇴근길 교통 정체 해소 기대

상동회관과 영창아파트를 잇는 작은말고개 도로가 9일 본격 개통됐다.

시는 "지난 2016년 총사업비 72억을 투입, 추진해온 상동회관 사거리에서 구룡동 영창아파트 입구에 이르는 작은말고개 도로가 지난 달 연장 878m, 폭 20m~30m의 4차선 도로로 완공돼 이달 9일부터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에 따라 동초등학교에서 전주 방향으로 우회전해왔던 차량들이 작은말고개 도로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출·퇴근길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작은말고개 도로 개통에 따라 상동회관 앞 교차로가 현재 4거리에서 5거리로 변경된다"며 "회전 교차로 설치 이전까지는 신호등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또 상동회관 앞 교차로에서의 신호체계가 기존과는 다르게 변경된다.

특히 기존에는 한솔초등학교, 사랑병원 방면에서 학산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컴퓨터 구조대 앞에서 동초교와 시청 방향으로 직진이 가능했으나 이후에는 학산로에서의 직진과 좌회전이 금지된다.

대신 우회전해 80m를 직진한 후 원상2길 사거리에서 U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는 충정로에서 작은말고개도로(전주 방향)을 이용하는 우회전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신호 지키기, 과속 금지 등의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서부산업도로(상동주유소~상동회관)개설(빠르면 내년 상반기)이 완료되면 6거리가 형성돼 교통신호등 체계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회전 교차로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경제분야 세부공약 발표

6.13 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해 '클린·정책 선거'를 실천하고 있는 이학수 예비후보가 매주 본인의 세부공약을 시민과 언론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9일, 그 첫 번째로 경제분야의 4개 세부사업을 공개했다.

이 예비후보의 핵심공약이자 경제분야 첫 번째 공약은 '농생명·바이오 국가산업단지 100만평 조성' 사업이다.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읍의 3대 정부출연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R&D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바이오 관련 산업의 적지로 평가된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입암면 천원리 일원을 총 면적 3,305,785㎡(100만평)를 약 7,500억원(전액국비)의 사업비로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근린생활·상업 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국가산업 단지로 조성하여 관련 기업유치로 약 100개 기업유치와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북의 서남권 및 인근도시 경제활성화로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도 부합된 농생명·바이오 산업을 송하진지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지원 프로젝트 '백년기업' 사업이다.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체계가 무너짐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세 번째 공약은 세계 최고의 식물세포주 은행을 설립하는 식물자원소재연구센터 유치 사업이다.

이 예비후보는 "범국가적 식물세포주 은행 및 대량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 농생명 산업의 트렌드 선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세계 최고수준의 식물 세포주 은행을 정읍첨단과학연구단지에 유치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공약은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본부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예비후보는 "정읍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일자리와 가계 소득의 감소 같은 지역경제 침체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복합적 악순환에 있다. 주장하며, "근본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54억 지원 농가 경영안정 도모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 구매자금 5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영세농가, 구제역·AI피해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TMR포함) 등 성분등록 된 것이다.

지원조건은 100%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기간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나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자금 대출은 선착순으로 대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